



도의회 사분오열... 민주당 셈법도 복잡

민주당 의원총회 열어 2기 예결위원장 추대 합의 일부 초선들, 특정 의원 원내대표 추대 '물밑작업' "분열은 지도부 책임" vs "의원들이 문제" 의견차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373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시점에 2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도의회 의석 2/3 이상을 점유하고도 주요 현안마다 당론을 모으지 못해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통해 활로를 찾는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오후 도의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2기 예결위원장과 공석인 부의장, 2기 원내대표 선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견 없이 초

선인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을 2기 예결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공석인 부의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원내교섭단체인 희망제주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경학 민주당 원내대표(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에 당내에서 송영훈 의원을 추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예결위원장의 임기가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0일 예결위원을 선임해

예결위원회를 구성한 뒤 내부에서 위원장 선출 형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2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김경학 원내대표를 재선임할지 새로운 인물을 추대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일부 초선의원들은 벌써부터 특정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합의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현재 도의회 운영 위원장이 원내대표까지 겸임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동안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당내 의원들끼리 갈등이 격화되면서 집행부와 정부를 상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새

로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원내대표 추대 움직임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도부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인원이 많은 60년대생 의원들이 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유불리만 따지면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원내대표는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그 중심에 열정적인 초선이 있는 것이지 누굴 낚을 문제는 아니"라며 "관례대로 합의추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가 이어서 할지 아니면 다른 의원이 맡게 될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어 잘하는 것도 능력... 전문성 인정해 직업 연계를"

의회 토론회 보전방안 제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소멸위기언어로 지정된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주어 활용능력을 전문성으로 인정해 직업으로 연계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와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김용범)은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 제주어 보전과 대중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제3차 제주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대중화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따라 분야별 추진 과제 실행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라며, 3개 분야·7개 추진과제·27개 세부과제에 5년간 97억6300만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김 전문연구위원은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깃든 우리 고유의 언어 유산으로 대중화와 활성화는 물론 행정·교육·언론·도민 사회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지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 선임전문관은 '소멸위기 언어 보전의 의미와 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토착어가 담겨있는 가치와 함께 세계의 토착어 보존 활동을 소개했다.

장 선임전문관은 이어 "제주어 활용능력이 자산이자 전문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직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제주어가 친근하고 재미있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와 미디어와의 접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성준기자**



제주도의회 의원총회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과 농수축경제위원회는 5일 가계부채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득 계층의 집중 구매 상품·서비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 실질 구매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2011~2018년 가계부채가 급증해 2019년 3월 말 현재 제주지역의 가계 부채액은 15조5197억원으로 지역총생산(GR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또 "특히 부동산 경기의 하향조정국면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 부동산 구입을 크게 늘린 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도 관광경기 둔화, 가계지출 여력 약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음식·숙박·도소매·운수업·기타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관광 관련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가계의 소득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 수석연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고부가가치화와 내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2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기·부동산 시장의 장기 하락세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의 부채 조정 지원 등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표성준기자**

'광어 생산 중심지' 제주, 과제는...

오영훈 의원 주최 토론회서 도 특산물화 노력 부족 지적

수입수산물 증가 속 국내 양식업계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광어 생산 중심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산물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더불어민주당·제주시)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입수산물 국내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입 수산물 증가에 따른 국내 양식업의 생존 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양식업계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강연실 전남대 명예교수는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에서 "수산물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노르웨이 등의 경우 2014년 인천에 한국 가공공장을 준공, 위생이나 선도·가격면에서 우리나라 헛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제주의 경우 광어 생산 중심지임에도 광어의 특산물화 노력이 부족하다"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국내 양식업계의 회생을 위해 적극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영제 바다녹색산업연구소장은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기간 양식산업으로 중점 육성 해준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자영업 비율 높은 제주... 자생력 키워야"

도의회 개최 정책토론회서 도내 가계 소득 위축 전망 소득여건 개선 방안 제시

취업자수 대비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28.9%(2015년 기준)로 전국 평균(22.1%)보다 높은 제주지역 가계의 소득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정책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과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의원)는 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가계소득 둔화의 영향과 정책 대응: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 점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수석 도의회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의 이날 주제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이후 둔화 추세를 보

여운 제주지역의 가계 소득은 관광 관련 산업의 부진, 건설경기 침체, 신성장 산업 활착 지연 등으로 상당 기간 위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 지연에 따른 임금소득 약화, 자영업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소득 약화, 저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소득 둔화 등 가계소득의 주요 소득원이 모두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 수석연구원은 "제주지역 중·저

맛과 향이 좋은 감귤(만감)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하하농법만이 해결책이다

당 H2O+CO2+햇빛(광)조화 => 당상승
 ◎ 꽃이 성숙개비 ◎ 꽃이 봉알 ◎ 2차낙과 후 일주일 간격 2회 ◎ 과일색이 탈색될때 3회 => **해피한그린** + **글루칼** 엽면시비

양(감) 내피를 양양막 또는 양양이라 하는데 양양을 부드럽고 씹히는 정도가 가볍게 하려면 => 붉순이 녹화되면 첫 세균(뿌리)발생시 자연(천연) 가리가 9% 들어있는 **하이휴믹** 토양관주

향 감귤(만감)을 먹고나서 여운의 향을 입안에 퍼지기 위해 착색시 => **해피한그린** + **글루칼** + **판이엔** 을 2번 엽면시비

해피한그린 이온이 3개인 희토 원소가 들어있는 복합생육조절제
글루칼 포도당 칼슘(글루콘산)으로 높은 흡수율을 자랑
판이엔 고기능 식이유황(MSM)함유된 환경친화적인 고기능 생육 촉진제
하이휴믹 알카리성 천연가리(K-부식산)로 친수성이 뛰어난 포타슘 휴믹산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 완효적 질소비 효과
- 석회효과
- 토양곰팡이 살균 방제효과
- 선충 밀도의 저하
- 잡초의 경감
- 토양소독 효과
- 가축의 기생충 방제
- 유기물의 부속 촉진
- 토양의 비옥화
- 토양 미생물 활성화

사용 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엽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